

신명아, 『현대철학의 종교적 회귀』(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아감벤의 생명정치 이론에서 메시아적 약한 정치학”(345-377)

글의 목적: “아감벤의 메시아적이고 약한 정치학을 연구해 위기의 시대의 정신적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다.”(346)

=> 약한 정치학?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바울의 약한 정치학(345)

1)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약한 자를 들어 올리셨다.

2) ~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 (고전 7:29-32: ..시간이 없다. 아내를 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 ~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경계선상에 서 있는 정체성? 혼종의 정체성?

들어가며: 아감벤의 메시아적 비전과 혁명정치학(346-)

- 아감벤은 바울의 <~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동일성(정체성)을 통한 경계 설정(이분법)의 문제점을 돌파하고자 한다.

- 아감벤의 말: “메시아적 소명은 모든 소명의 철회이다.”(346) - 이것은 적과 동지의 대립으로 구성된 모든 정치구조에 내재된 이분법의 해체를 뜻하며, “메시아 자신만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벤야민의 역사철학과도 연관된다.(347)

=> 그렇다면 이 메시아적 소명은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아감벤과 벤야민에게 망각되었던 과거의 침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발적 의식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비자발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떠오른 기억이다.

- 아감벤과 벤야민은 “의식적 기억과 것처럼 망각된 과거를 대조”하고, “망각된 것의 형체를 알 수 없는 혼돈” 곧 것처럼 망각된 과거의 힘을 메시아적 시간, 메시아적 비전과 연결시키는 듯하다.(347)

=> 여기서 아감벤은 바울의 시간(종말)이해를 해석한다: “바울에게서 과거의 구원은 메시아적인 것을 위한 기회의 장소이다. ...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을 생각하는 주체들조차도 아닌 것처럼의 논리에 걸려서 소환되고 동시에 [현세의 소명은] 철회된다.”(348)

- 벤야민의 ‘메시아적 시간’과 관련하여 아감벤은 “인식되지 않은, 그러나 망각될 수 없는 과거”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해체하는 힘”을 발견한다.(348)

=> 메시아적 시간?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금-시간(Jetztzeit). 연속적 시간이 단절되는 카이로스의 출현. 종말의 시간 = 남겨진 시간. 모든 기존의 시간 속 권력이 폐지되는 순간. 나그네로서의 삶. ~ 아닌 것으로 삶 <--> 안정적,

제도적 삶.

=> 진보적 낙관주의나 역사주의와도 달리, 단절과 불연속성에도 구원의 문을 과거를 향해 활짝 열어놓은 시간.

카프카, 벤야민 그리고 아감벤(350-)

- 법의 속성: “카프카의 전설은 법이 이것이 더 이상 어떤 것을 규정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큰 힘으로 자신을 단언하는 순수한 형태 - 말하자면 순수한 금지를 보여준다.”(350) 카프카의 <심판>에 등장하는 시골 사람에 대한 해석: “훼방받은 기독교적 메시아”, “법의 운용을 방해” 함으로써 “메시아적 정치학을 구현”(353)

- “메시아적 ‘진정한’ 예외상태” <--> “혈벗은 삶, 호모 사케르를 생산하는 ‘부정적’ 예외상태”(352) = “[금지를 통해 혈벗은 삶을 만드는] 완전히 법으로 변형된 삶”(353)

=> “메시아적 진정한 예외상태”란 무엇인가? 아마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법의 구속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지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법으로부터 배제될까 두려워 벌거벗은 삶에서 시민적 삶으로 예측해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법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배제당함으로써(법을 탈활성화시킴?) 자유로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 “메시아는 문이 닫히고서야 들어올 수 있다. ... 시골 사람의 메시아적 아포리아는 우리 시대가 주권자의 금지를 정복하는 데서 대적해야 하는 어려움을 정확히 표현해준다.”(354)

- “메시아적 순간”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354)을 의미한다.

메시아적인 것, 수치와 윤리(355-)

- 아감벤은 수동적 이론가인가? “혈벗은 삶이 법의 ‘예외상황’에 대항하는 ‘진정한 [메시아적] 예외상태’임을 강조”- 이것이 “아감벤의 급진적이고 행동적인 전략”(355)

- “호모 사케르의 생산을 방지하는 것은 호모 사케르의 구성적 힘을 구성된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금지의 불명확한 영역을 의식하고, 그것을 탈-활성화시켜 잠재성이 열리도록 만들어 그런 종류의 이분법적 사고의 적용을 해체하는 것이다.”(355-356)

=> 호모 사케르는 법의 예외상태에 처한 인물이다. 이로써 그는 법의 집행에 의해 만들어진 혈벗은 생명이지만, 동시에 이로써 법의 테두리 밖에 서 있다. 즉 법을 무효화한다.

- 잠재성의 윤리: 나치 살해자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를 느낀, 그래서 “주권적 수치심”을 통해 “무자비한 주권자의 예외상태”를 무효화시켜 버린 “매우 고귀한 수치”(357)의 윤리는 “혈벗은 삶의 상황을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무엇이든지 존재의 고귀한 순간으로 역전

시킨다.”(358)

=> 수치를 느껴야 할 사람은 나치가 아닌가? 그런데 나치에 의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된 그녀가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을까? 그녀의 수치심은 주권자로서의 나치의 힘을 비활성화하는 것일까?

역사의 천사, 예술의 천사, 약한 인물들과 메시아적인 것(358-)

- 아감벤에게 수치는 “종국에는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며, “어설피고 약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359)
- “한마디로 수치는 은밀하게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심오한 메시아적 주제이다. 오늘 우리에게 불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할 요소들이다.”(359-360)

아감벤의 메시아적 잔여물(362-)

- “잔여물은 ... 구원을 가능케 한다. ... 그런 것으로서 그것은 메시아적 시간과 관련 있다.”(362)
- => 아감벤은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와 뒤러의 천사(<멜랑콜리아 I>)에 애착을 느끼는데, 이는 기존의 전체성에 속하지 않는 잔여물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두 천사는 영웅적이지 않으며 행복한 사람도 아니며, 어린아이 같고, 서투르며 우울하다.”(363)
- “아감벤은 벤야민과 뒤러의 천사가 발전과 직선적 시간의 [이성적] 세계 속에서 소외된 것으로 간주한다. 천사에 대한 그의 강조는 메시아적인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미래에 성취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 형태로, 법을 무효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나온다.”(365-366)

결론(369-)

- 현 상황: “호모 사케르를 생산하는 예외상태로서 설명될 수 있는 인간 상황에 대한 암울한 조건” .. “인간에게는 자기를 옹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설명도 없이 국가의 주권권력 때문에 법의 기존체계에 속박”된 존재(369)
- 반전: “그러나 호모 사케르가 ... 종국적으로, 아감벤에게는, 정치의 ‘영웅’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372) “약한 인물을 내세워 서구 철학의 법과 기존의 다른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무효화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아감벤의 의도”(374)
- 결론: 험벗은 삶의 구성적 힘에 대한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에 반대하여 “아감벤은 구성적 힘과 주권적 힘의 구분은 불가능하며, 구성적 힘은 엄격히 정치적인 개념이 되기를 그치고,

필연적으로 자신을 일종의 존재론적 범주로 제시하게 된다고 비판한다.”(375)

=> 주권적 힘, 곧 주권은 항상 예외상태를 만든다. 배제의 방식을 통해 혈벗은 삶을 양산한다. 하지만 혈벗은 삶이 구성적 힘이 될 때,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것 또한 주권적 힘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는 뜻일까?

=> 호모 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zoe)으로서 법적 보호 아래 있는 정치적 삶(bios)으로서의 시민과 구분된다. 하지만 역으로 예외상태로서의 호모 사케르야말로 법의 집행에 저항하며 그 한계를 드러내는 정치적 저항세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오스로서의 정치적 삶이란 주권자의 규범과 통제 아래 놓인 (거짓) 삶이며,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난(배제당한) 벌거벗은 생명(zoe)야말로 참된 삶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